

한국언어연구학회

2021년 춘계온라인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일시: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장소: 온라인 (Zoom)

주관: 한국언어연구학회

주최: 한국언어연구학회

2021년 춘계온라인학술대회

- 일시: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 장소: 온라인 (Zoom)
- 회의 참가 링크:
<https://us02web.zoom.us/j/2942954925?pwd=aWc5QTIDY1gyQjh2czJMS2psYkgrUT09>
- 일정

시간	행사내용
10:00-10:25	등록 및 안내
10:30-10:55	한미애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성조 습득 발전 연구 - 3성 변조를 중심으로
11:00-11:25	서나진(북경사범대학): 중국어의 체면위협행위 이론 적용 타당성에 관한 논의 -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의 체면위협정도 비교
11:30-11:55	고영희(제주대학교)·고용진(제주한라대):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교육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12:00-12:25	양창용(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A Study on a Pedagogical Linguistic Landscape: From a Preliminary perspective
12:30-12:55	허은진(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자기평가에 대한 통역학습자의 인식과 학습적용
13:00-13:10	폐회

목 차

- 1**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성조 습득 발전 연구 ----- 8
- 3성 변조를 중심으로
발표 : 한미애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2** 중국어의 체면위협행위 이론 적용 타당성에 관한 논의 ----- 23
-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의 체면위협정도 비교
발표 : 서나진 (북경사범대학)

 - 3**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교육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 42
발표 : 고영희 (제주대학교) · 고용진 (제주한라대)

 - 4** A Study on a Pedagogical Linguistic Landscape: ----- 52
From a Preliminary perspective
발표 : 양창용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 5** 자기평가에 대한 통역학습자의 인식과 학습적용 ----- 66
발표 : 허은진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작년(2020년) 이맘때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봄 학술대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나 또 다시 춘계학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의 상황은 잠잠했다가 나빠지다가 기복을 반복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미래영어영문학회와 공동주최로 대면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상황이 호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금년 4월말부터는 또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정도로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봄 학회를 준비할 때 대규모 모임을 제한하는 방침으로 학교 시설도 이용하기 힘들다는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결국 또 언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적이라 생각했던 긴급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학회 활동도 상당한 제약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작년은 발표물 탑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대체했지만, 올해는 그나마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간소하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나라의 시 한 구절을 패러디해서 이 온라인상 만남의 인사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網上相逢無紙筆，憑君傳語報平安

(웹에서 만나 종지와 붓이 없으니, 무사안녕하다고 전해주소~)

감사합니다.

2021년 06월 26일

한국언어연구학회 회장 **김 중 섭**

1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성조 습득 발전 연구 - 3성 변조를 중심으로

한미애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국언어연구학회 봄 학술 대회
2021년06월26일, 제주대학교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성조 습득 발전 연구 - 3성 변조를 중심으로

한미애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주요 내용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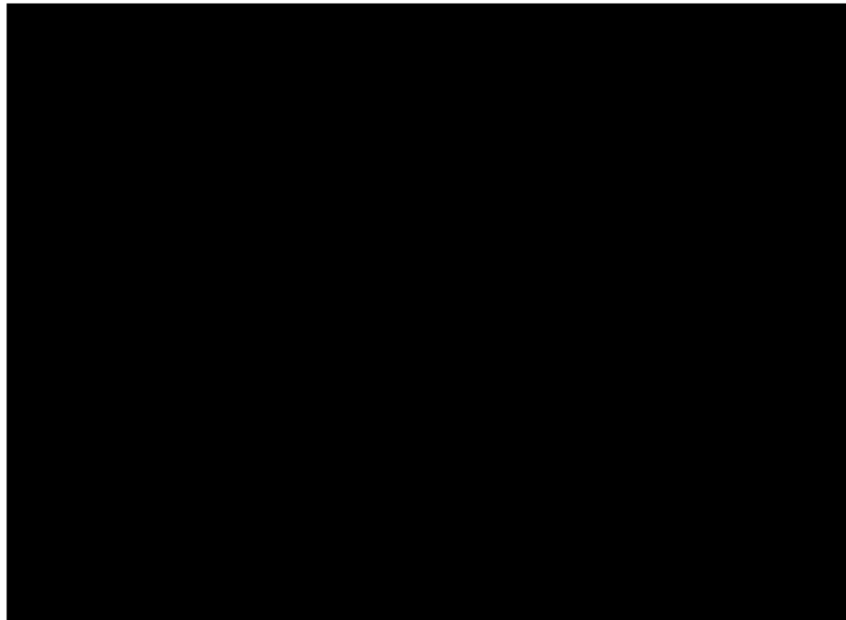
- 중국어: 성조 언어 → 의미 구별

māma mà mǎ

妈妈 骂 马

- 높은 출현빈도: 성모21개, 운모35개, 성조4개
→ 치명적 걸림돌

3



4

qíshí 其实 → qīshí 七十

jiùshì 就是 → jiǔshí 九十

⋮

二百五十一个人

5

2. 선행 연구

2.1 3성 변조 교육의 중요성 : 습득 난이도

- 정태성조 vs 동태성조 (김정필·김창경, 2011)
→ 1,2,3,4성 → 경성변조, 3성변조
- 3성 변조: 무형변조(외형 그대로, 발화시 변화)
shuǐguǒ lǎoshī hǎoxiàng
- 변조의 표기 : ✕ ✕ (胡炳忠, 1985)

6

2.2 3성 변조 습득 관련 연구

(1) 정태성조로서의 3성 습득

- 중국인 아동: 3성을 제일 늦게 습득
→복잡한 변조 존재
- 한국인 학습자: 3성의 오류 제일 높음
→2성과 유사한 양상

7

(2) 동태성조로서의 3성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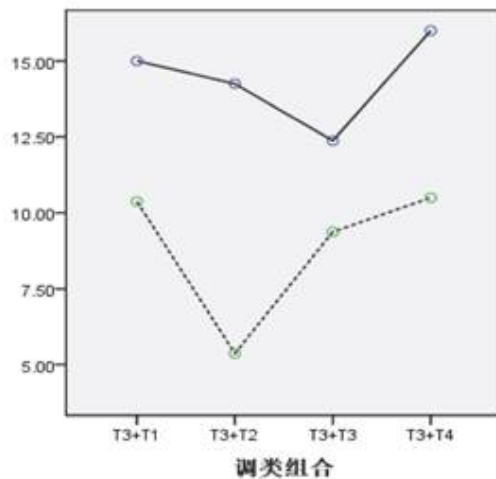
- 중국인 아동 (张磊等, 2019)

表 2 3~5岁听障儿童与健听儿童普通话不同上声变调组合双音节词正确率(%, $\bar{x}\pm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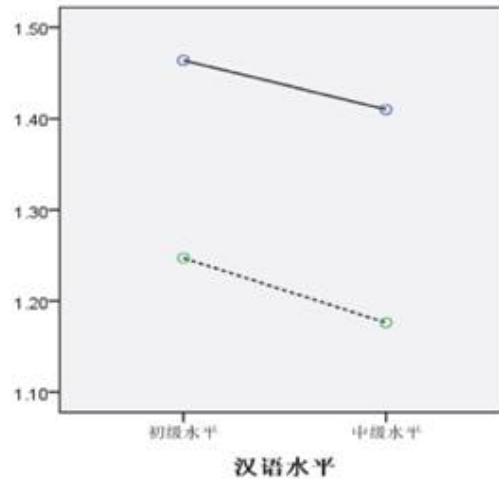
儿童类型	年龄(岁)	例数(例)	不同上声变调组合			
			上声+阴平	上声+阳平	上声+上声	上声+去声
听障儿童	3	15	86.67±19.51	74.67±23.26	85.33±19.22	76.00±15.49
	4	15	81.33±22.00	77.33±29.15	80.00±28.28	84.00±17.24
	5	19	89.47±18.10	94.74±11.24	91.58±13.85	89.47±12.24
	合计	49	86.12±19.67	83.27±23.22	86.12±20.90	83.67±15.64
健听儿童	3	15	97.33±10.33	100.00±0.00	93.33±12.34	100.00±0.00
	4	15	100.00±0.00	98.67±5.16	93.33±9.60	100.00±0.00
	5	19	97.89±9.18	100.00±0.00	92.63±11.95	100.00±0.00
	合计	49	98.37±8.00	99.59±2.86	93.06±11.22	100.00±0.00

8

■ 외국인 학습자 (胡笑微、彭家法, 2018)



- 정확도 높음: 3+4
- 정확도 낮음: 3+2, 3+3



- 중국어 수준의 영향 X

선행연구의 한계점

- (1) 한국인 학습자의 3성 변조 습득 양상을 고찰한 연구가 거의 없다
- (2) 문장 단위의 발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고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 (3) 성조 습득의 발전 과정을 기술한 종적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 문제

- (1) 한국인 학습자의 성조 조합에 따른 3성 변조의 습득 양상은 어떠 한가?
- (2) 3성 변조의 습득 양상은 중국어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3) 학습 기간에 따라 3성 변조의 습득 양상은 변화하는가?

11

3. 연구 방법

- 4×2×2 혼합실험설계
- 독립변수 : 성조조합 (3+1,3+2,3+3,3+4)
중국어 수준 (하급, 상급)
학습 기간(전기, 후기)
- 종속변수 : 오류 횟수

12

3.1 피험자: 중국어 전공 대학생 22명

(상급, 하급 각 11명)

<표 1> 상급 학습자와 하급 학습자의 독해점수

중국어 수준	평균	표준편차
상급 (N=11)	43.64	3.04
하급 (N=11)	30.73	3.63

- t검증 결과, 상급 학습자의 독해점수가 하급 학습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음 ($t(20) = 9.032, p < 0.001$)

13

3.2 실험 자료: 『목표 달성 중국어 4』(JRC박스, 2016)

문장 단위로 녹음, 2음절 어휘 분석
 성조 조합별 10개, 총 40개
 (가경성, 중첩형식, 동보 구조 제외)

<표 2> 실험자료 예시

성조 조합	예 시
3성+1성	好吃 每天 许多 老家
3성+2성	比如 水平 以为 可能
3성+3성	保险 水果 子女 永远
3성+4성	早饭 想念 比较 享受

14

3.3 실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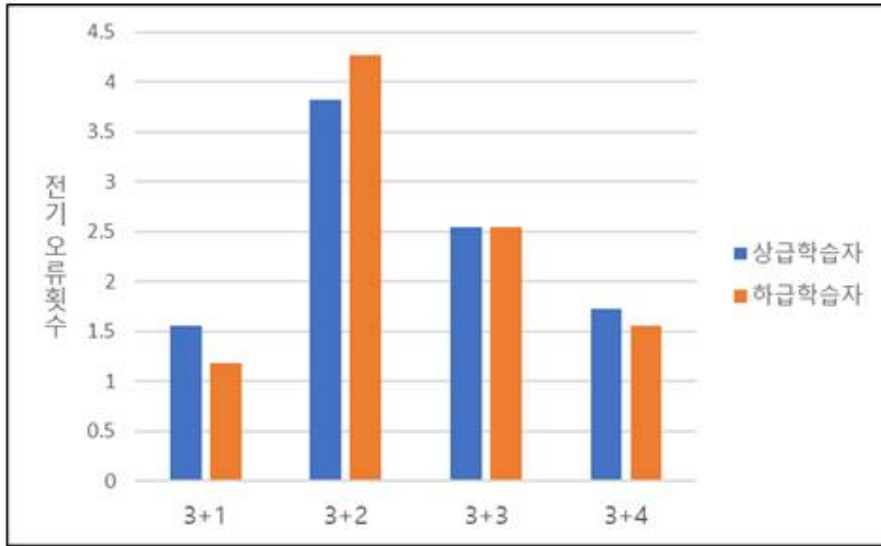
- (1) 매주 학습한 내용 녹음 후 제출하도록 요청
- (2) 음향 프로그램 사용, 2음절 어휘를 추출
- (3) 3성 변조의 오류 판단
- (4) Excel 활용, 3성 변조의 오류 횟수 정리
- (5) SPSS 19.0 활용, 통계 분석 수행

15

4.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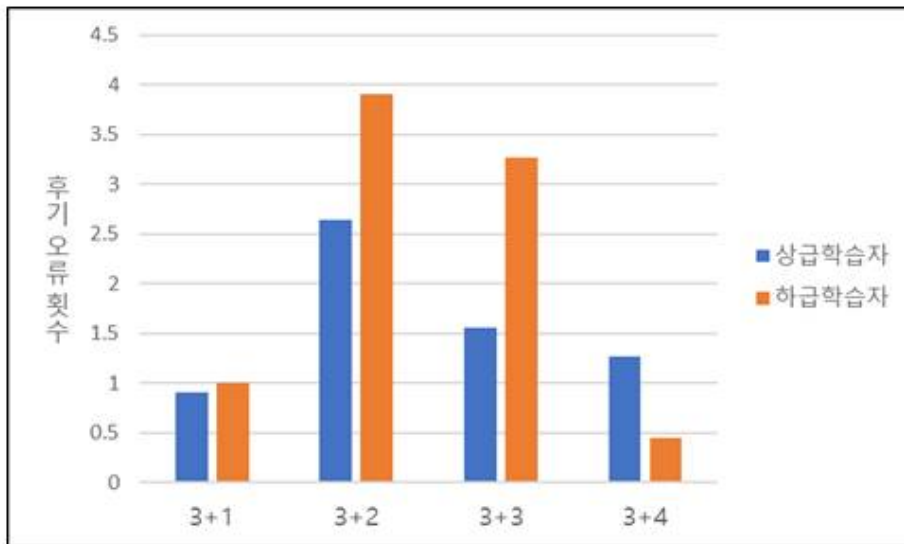
- 3성 변조 2음절 어휘 총 880개
- 데이터 제거: 소실, 판단 불가, 잘못 발음
전기 5.9%, 후기 3.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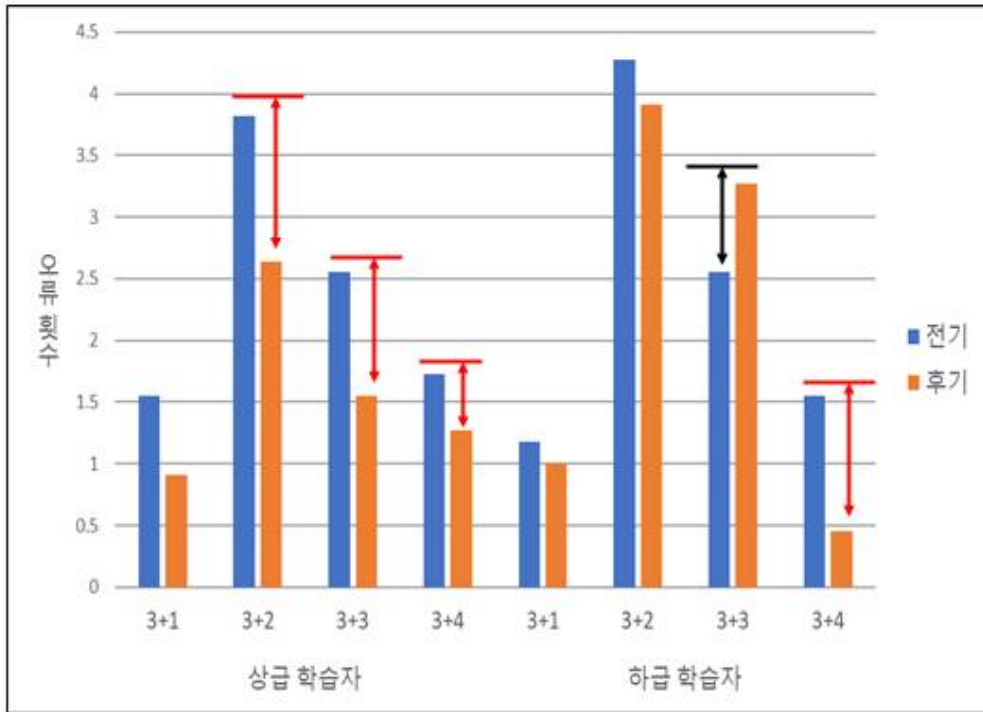
- 습득 양상: $3+1=3+4 < 3+3 < 3+2$
- 중국어 수준의 차이 없음

17



- 습득 양상: 전기와 유사
- 상급 학습자의 오류 횟수 감소

18



19

5. 결론

5.1 한국인 학습자의 3성 변조 습득 양상

- 오류 횟수 $3+1=3+4 < 3+3 < 3+2$ 순으로 많음
- 전기와 후기 모두 유사한 양상
- 상급 학습자와 하급 학습자 모두 유사한 양상
 -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 (胡笑微、彭家法, 2018)
 - 정태성조로서의 2성과 3성을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하강과 상승의 오류)

20

5.2 학습 기간에 따른 3성 변조의 발전 양상

- 상급학습자: 학습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3+1, 3+2, 3+3 변조의 오류 횟수가 감소
- 하급학습자: 학습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3+4 변조의 오류 횟수 감소, 3+3 오류 횟수 증가
 - 정의적 측면(학습 동기)이 3성 변조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21

5.3 성조 교육에 대한 제언

- 발음 지도 교과목 개설
(김정필·김창경, 2011)
- 2성, 3성 교육, 3+2, 3+3 변조 집중 교육
- 피드백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22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

2

중국어의 체면위협행위 이론 적용 타당성에 관한 논의
-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의 체면위협정도 비교

서나진(북경사범대학)

중국어의 체면위협행위 이론 적용 타당성에 관한 논의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의 체면위협정도 비교

서나진

(북경사범대학교)

Seo, Najin. 2021. Discussion on the feasibility of applying the theory of face-threatening act in Chinese.

In conversation, we consider the other person's face. In Chinese, people value face, especially in order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Brown & Levinson's theory gained theoretical validity by recognizing the problem of politeness as a problem of linguistic systems. However, it still has challenges in securing universality.

Therefore, this paper embodies the concept of face and considers Brown & Levinson's face-threatening-act(FTA) and its strategy. We also explored the problem of applying Brown & Levinson's theory to Chinese face expressions by considering the unique features of China. In particular, we considered through a survey whether judgments on the degree of face threat of active and passive politeness with mitigation devices are equally applied in Chinese. Finally, we proposed to apply this theory to the Chinese languag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looked at the validity of applying general theory to specific languages.. (Beijing Normal University)

Key words : face in Chinese politeness, face-threatening-act, positive face, negative face.

1. 서론

언어는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언어는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대화 참여자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하였는데, 협력 시에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게 된다. 중국어에서는 특히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체면을 중시한다. 체면은 중국인의 중요하고 전형적인 사회심리 현상으로 중국인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중국인에게 있어 체면은 판시(관계)와 함께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언어사용 중의 체면을 연구한 대표적인 이론이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 원리로 이 원리의 핵심 개념이 체면이다. 체면의 위협 정도에 따라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체면보상 전략은 발화를 부드럽게 하고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이론은 공손성의 문제를 언어체계의 문제로 인정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받았다. 그러나 보편성 확보에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기도 한데, 개인주의 중심의 서구 유럽 문화에는 잘 적용되고 있는 반면 집단주의 중심의 동양 사회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 사회에서는 강조하는 체면의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브라운 레빈슨의 체면 위협행위에 대한 전략, 특히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이 가지는 체면 위협 정도에 대해 중국어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체면과 관련한 언어학, 사회학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체면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브라운 & 레빈슨의 공손원칙이론의 체면위협행위와 그 전략을 고찰해본다. 또한 다른 문화와 대비하여 중국의 고유한 체면의 특징을 고찰하여 브라운 & 레빈슨의 이론을 중국어 체면표현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명시적 전략 중에서 완화장치가 있는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의 체면위협 정도에 관한 판단이 중국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를 설문 조사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을 중국어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 언어에 보편적인 이론 적용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를 볼 수 있다.

2. 체면의 속성과 관련 이론

2.1 체면 연구의 개괄

영국의 사회학자 고프만(1955, 1967)은 사회학 시각에서 “체면(face)”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언어학자 브라운 & 레빈슨(1978, 1987), 리치(1983), 팅-투미(2005) 등이 대표적으로 체면을 연구하였다.

고프만은 체면의 희극적 이론, 체면 교류 그리고 체면 작업을 제시하였다. 고프만은 사람들이 체면에 관심을 갖는 것을 무대 위의 연극배우로 비유할 수 있다고 여겼다. 대중이 자신을 위해 쟁취하는 적극적인 긍정적 사회 이미지에 비유한 것이다. 체면 작업(face work)은 교류 과정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체면위협행위가 생기는 걸 피하는 회피 과정과 교정조치가 체면위협행위를 교정하는 교정과정을 포함한다.(范洪涛, 刘铁凤, 刘茹菲, 2019)

브라운과 레빈슨은 1978년에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를 출판하였고, 1987년 다시 개정하며 *Politeness: Some Universals of Language Usage*를 출판하며 공손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였다. 브라운 & 레빈슨(1987)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공손 모델로서 평가되며 수많은 공손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로서 수용된다.(조용길, 2003) 또한, 리치(1983)도 공손원칙으로 6가지 규범을 제시하였는데, 이 규범들은 모두 사람들이 교류하며 일반적으로 지키는 공손원칙이다¹. 팅-투미(2005)는 브라운 & 레빈슨의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 이론에 비추어 문화충돌과 체면에 중점을 두고 서로 융합하였다. Ting-Toomey는 체면의 유지가 개인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 따라 상이하다고 하였다. 개인주의적 문화는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며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지만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자기만 내세우기보다는 각자의 체면 손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집단을 위한 언어 행위를 한다고 하였다.(范洪涛, 刘铁凤, 刘茹菲, 2019)

2.2 언어학자 브라운 & 레빈슨 공손 원리의 체면론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브라운과 레빈슨은 조사를 통해 영어, 멕시코 토속어, 인도 남부 토속어가 서로 아무 관계없음에도, 공손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고프만의 이론을 토대로 이들은 자신들의 공손이론과 체면(face), 체면위협행위(face-threatening acts) 그리고 체면보호론(face-saving theory)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谢士金, 李方晓, 2007)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 원리에서 공손은 체면을 보호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따라서 체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브라운과 레빈슨은 체면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소속의 일원으로서 수용되기를 바라는 욕구(적극적 체면)와 자신의 자율영역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권리(소극적 체면)로 설명했다. 즉 전자는 ‘가까이 다가가기’ 또는 ‘친밀’의 욕구, 후자는 ‘거리 두기’의 욕구에 상응한다.(조용길, 2007)

체면은 위협을 받는 경우에 보호해야 하는데 브라운 & 레빈슨은 이를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경

¹ (1)적절의 규범(tact maxim), (2)관용의 규범(generosity maxim), (3)참여의 규범(approbation maxim), (4) 겸손의 규범(modesty maxim), (5)동의의 규범(agreement maxim), (6) 동정의 규범(sympathy maxim)

우와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화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경우도 구분하였는데 이는 화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가 잠재적으로 청자의 체면도 위협하기 때문이다.(Brown, P., Levinson, S. C., & Levinson, S. C., 1987)

체면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고프만은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체면 작업(face work)으로 체면위협 행위의 회피 과정과 교정과정을 포함하였는데, 브라운 & 레빈슨은 체면위협의 정도에 따라 위협을 회피하거나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전략을 위해서 체면위협행위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효율적 또는 긴급적이 되는 욕구 그리고 화자가 자신의 체면위협행위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참여자들이 어떤 소통적 의도가 행동 A를 하게 하는지 명확하다면 명시적으로 행동 A를 한다. 이와 반대로 그 의도에 전념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행동 A를 한다. 은유와 모순, 미사여구식 질문, 절제된 표현 등의 전략을 포함한다. 화자가 원하거나 소통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명시적 전략 중 완화장치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행동하기는 가장 직접적, 명확, 간결한 방법이다(X해). 이는 화자가 청자의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행해진다. 예를 들어 화자와 청자 모두 체면 요구의 관련성은 긴급이나 효율을 위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청자의 체면에 대한 위협이 적거나 청자가 분명히 관심을 가질 만한 제의, 요청, 제안, 연설자의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화자의 권력이 청자보다 월등히 우월, 화자의 체면을 잃지 않고 청자의 체면을 파괴하도록 청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명시적이지만 완화장치가 있는 전략은 상대에게 체면을 준다. 화자는 청자의 체면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음을 인식한다. 이 전략은 다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적극적 체면을 지키는 것과 소극적 체면을 지키는 것이 있다. 전자를 적극적 공손 전략, 후자를 소극적 공손 전략이라고 한다2.

적극적 공손은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목표로 삼는다. 화자는 청자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행위의 잠재적 체면 위협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어느 정도 청자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확신에 의해 최소화 된다. 적극적 체면은 타인의 찬성과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 공손 전략은 상대에게 관심 갖고 다정하게 대하거나 상대에게 집중하고 찬성하기 또는 상대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반면에, 소극적 공손은 부분적으로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한다. 방해받지 않는데 집중하여 화자가 소극적인 체면의 욕구를 존중하고, 화자의 행동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으로 이루어진다. 소극적 체면은 타인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 체면 전략은 강요하지 않거나 함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李炜婷, 2010)

많은 화행이 본질적으로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 공손을 중시하는 것은 대인간 교류에서 이러한 체면에 가해지는 위협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브라운 & 레빈슨은 권력(P), 사회적 거리(D) 그리고 청자에게 가해지는 부담(Rx)이 공손의 정도와 체면위협정도를 정하는 세가지 사회적 변수라고 하였다.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정도를 공식화하여 나타냈다.(Brown, P., Levinson, S. C., & Levinson, S. C., 1987)

$$W_x = D(S, H) + P(H, S) + R_x$$

W는 청자에 대한 체면 위협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높으면 체면을 위협할 정도가 높은 것이다.

2 선행 연구 중의 적극적 공손 전략: 노심덕(1998)관심의 표명, 관심의 강화, 내집단 표지, 적극적 존대, 반복 표현, 동의 표시, 이해 전제, 약속과 제의, 욕구 충족, 이유 설명, 협력 표시, 농담; 정금미(2010)공감대 형성, 강화수식어 사용, 청자 관심 촉구, 동질 집단어, 동의 구하기, 반대 회피, 주저어, 상호간 협력자 관계, 제안, 약속, 낙관적 표현, 이유문기, 보상으로 호의 표시; 김지연(2010) 상대 인정, 공감, 내집단 표지, 일상어, 축약어, 선한 거짓말, 청자와 동일 수준, 감정 이입, 긍정 예상의 부정의문문, 지식 공유 전제, 농담, 협력 표시, 제안, 낙천적 태도, 행위 동참.

선행 연구 중의 소극적 공손 전략: 노심덕(1998) 관행적 요청, 의견 존중, 겸양 표현, 감사와 사과, 충돌회피, 부담의 완화; 정금미(2010) 관용적 공손표지, 주저어, 양상동사, 존대호칭, 사과, 책임전가, 비인칭, 명사화, 비관적 태도, 신세, 완곡; 김지연(2010) 간접화행, 울타리어, 주저어, 강요안함, 공대 표현, 사과, 행위자 생략, 비인칭화, 수동태, 상황태, 복수형 인칭대명사, FTA 일반화, 함축 사용.

D(S, H)은 청자와 화자 간의 '대칭적 관계'의 사회적 거리라고 하였다. 상호작용의 빈도 등을 평가하여 알 수 있다. P(H, S)는 D와 달리 '비대칭적 관계'로 물질적 통제(경제적 분배, 신체적 힘)가 추상적인 통제(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덕)이 주요한 원천이다. R은 문화적, 상황적으로 정의된 부담의 순위로서, 행위자의 자기 결정 욕구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체면위협정도에 따른 전략을 다음의 표와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1〉 브라운 & 레빈슨의 체면위협정도에 따른 전략

체면위협정도 작을수록	FTA 사용함	명시적 (on record)	① 완화장치 없음, 단도직입적	
			완화장치있음	②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 ③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
		④ 암묵적, 간접적(off record)		
체면위협정 클수록	⑤ FTA 사용 안함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체면위협 정도(W_x)가 낮을수록 체면위협행위(FTA)를 사용하고(①②③④), 체면위협정도가 높으면 체면위협행위를 사용하지 않는다(⑤). 어떤 체면에 압박이 있는지에 따라 형식을 정한다하였다. 체면위협행위는①, ②, ③, ④의 순으로 체면위협 강도가 작아진다. 체면위협행위 중에서 단도직입적 전략이 가장 체면을 위협하고, 예둘러 말하거나 비유하는 등의 간접적 전략이 체면을 가장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상대를 긍정하고 관심을 갖는 적극적 공손 전략이 양상동사를 사용하거나 명사화하는 소극적 공손 전략보다 체면위협정도가 크다는 사실은 사회의 가치적 다양성 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공손이 체면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체면의 보호보다 소극적 체면의 보호를 더 강조했다는 것은 브라운 & 레빈슨의 이론적 배경에 소극적 체면이 우위에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중국어의 경우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3. 중국 체면의 고유 속성

3.1 중국 체면(面子)의 개념

面은 원래는 사람의 오관(眉, 目, 鼻, 口, 耳)으로 구성된 얼굴의 지표였으나 점차 심리, 사회적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변화하여 사업적 성공의 반영의 의미뿐 아니라 겉치레로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으로까지 의미가 변화하였다.(周建波, 解海兰, 2003) 체면이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연구 대상이 된 것은 그것이 일반 민중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전통 또는 민속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얼굴(체면)이 필요하고 나무는 껍질이 필요하다(人要脸, 树要皮). 선비는 죽을 수는 있으나 업신당할 순 없다(士可杀, 不可侮).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않고, 폭로해도 단점을 들추진 않는다(打人 不打脸, 揭人不揭短)"³ 등의 표현을 보면 중국인들에게 체면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 체면이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미엔즈(面子)이고 다른 하나는 리엔(脸)다. 영어로는 "face"라고 지칭하여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다. 후시엔진(胡先缙, 1944)은 미엔즈(面子)과 리엔

³ 周建波, 解海兰. 2003. "风水、面子与市场营销 中国传统价值观对营销的影响". 证券日报

(臉)의 정의에 대해 미엔즈는 "얼굴을 내밀다(抛头露面)" 와 같은 사회적 특성을 가진 반면에 리엔은 "체면을 떨어뜨리다(丢面子)" 같은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范洪涛, 刘铁凤, 2019) 차이쉐웨이(翟学伟, 2004)는 미엔즈(面子)가 지위, 재력, 권력이나 성취 등의 명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품격과 성취를 포함한 개념이라면 리엔(脸)은 한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인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리엔을 잃으면(丢脸) 중국인들은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으나 미엔즈를 잃으면(丢面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공통적으로 미엔은 사회적 명성, 리엔은 도덕적 품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엔즈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체면은 중국인들에게 있어 일상적인 개념이지만, 린위탕(林语堂)은 체면의 개념정의가 "정의내리기 불가능(impossible to define)"하고 "추상적이고 파악하기 어렵다(abstract and intagible)"고 하였다.(이선유, 2004) 또한 루쉰(鲁迅)은 "무엇을 미엔즈라고 해야 하나? 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 진다"고 하며 체면 개념정의 내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解海兰, 2003) 루쉰은 또한 "(아쉽게도) 체면은 변화를 잘해서 "뻔뻔하다(不要脸)"는 의미와도 뒤섞였다"라고 하였다.(鲁迅, 1994) 『아Q 정전』에서 보인 '정신승리법'이 체면을 잃을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행위인 것이다. 사람들에게 맞고서 "아들에게 맞은 셈 치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체면을 보호하는 나름의 방법이었다.(谢士金,李方晓, 2007) 이외에 후시엔진(胡先缙, 1989)은 체면을 개인신분의 상승으로, 루위(鲁瑜, 2005)는 타인으로부터의 이상적인 이미지 획득을 위한 쟁취로 이해했다.

중국어의 미엔즈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체면이라는 의미 외에도 자존심, 자긍심, 명예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에게 체면은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체면을 학문적 시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였다.(이선유, 2004)

란용핑(冉永平, 2015, 2018)은 대인관계 화용론 시각에서 인정(人情), 체면(面子) 그리고 안면(情面)⁴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란은 언어교류와 비언어교류 중에서 인간관계를 만들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모두 예의(공손), 체면, 호의/인정(人情), 안면(情面)등의 호혜성과 관련되어있다고 하였다.(冉永平, 2018) 유가의 "화(和)" 문화의 영향으로 대인교류에서 선의를 베풀고 화목하게 발전하는 것(与人为善, 和谐发展)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어 문화에서 체면의 주요 기능은 화목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만들고 개인의 사회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체면 선택 전략의 심리적 요소는 자신은 낮추고 남을 높이기(贬己尊人), 대인간 상호의존(和人际互倚) 그리고 다름 안에서 일치 구하기(异中求同)등 세가지가 있다. 같음을 구하는 것(求同)이란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을 때에 먼저 긍정을 하고 후에 부족한 것을 가리키거나 먼저 찬성하고 후에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谢士金, 李方晓, 2007)

차이쉐웨이(翟学伟)는 화용연구와 사회학, 심리학을 아울러 미엔즈 문화에 깊이있는 체계적 탐구를 했다. 그는 미엔즈는 확장성이 강한 개념으로 체면문제를 단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는 체면이 "조상을 빛내는 것(光宗耀祖)"과 "덕을 보는(沾光)" 등의 심리나 행동과 서로 관계가 있다. 또한 중국문화중에 "한 사람이 하늘에 오르면 닭과 개도 신선이 된다(一人升天, 仙及鸡犬)"가 바로 미엔즈의 복사성(辐射性)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 체면을 세워주면(留面子), 그에게 호의(人情)⁵를 주는 것이다. 체면과 호의는 상호작용한다. 만약 체면문제를 단독적으로 파악한다면 쉽게 방향을 잃을 것이다.(翟学伟, 2016; 范洪涛, 刘铁凤, 2019)

중국인은 '자기사람(自己人)'과 '외부인(外人)'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태도를 달리나타낸다. 체면도 사람이나 장소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외부인보다 자기사람들 앞에서 더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낮추던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소리 높여

⁴ 안면(情面)은 개인간의 정분이나 체면을 의미하고 유의어는 인정(人情)이다.

⁵ 人情, 인정, 인지상정, 개인적인 정, 호의, 은혜 등의 의미가 있다.

연쟁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주민욱, 2015)

진야오지(金耀基, 2002)는 체면을 도덕적 체면과 사회적 체면으로 구분하였다. 도덕적 체면은 사회 집단 안에서 도덕적 명예를 지닌 사람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체면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명성으로 사회가 부여하고 사회로부터 규정되는 체면을 의미한다.(주민욱, 2015) 이는 미엔즈와 리엔의 구분과 일치한다.

중국인의 체면관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사회생활 중 작용하는 체면관에 대한 정의 및 개념정리를 시도한 연구(翟学伟, 1999, 2004; 吴铁钧, 2004), 서양인과 중국인 상호 간의 체면관과 그 개념을 상호 비교한 연구(沈毅, 2003; 鲁瑜, 2005; 缪昌义, 2008; 崔佳佳·杨春红, 2008) 그리고 체면과 특정집단, 예를 들어 소비자 집단(姜彩芬, 2009), 대학생 집단(胡秀润, 2006) 각각의 태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체면요인을 관찰한 연구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민욱, 2015)

3.2 중국 체면 비교연구

3.2.1 체면 형성 배경의 비교

중국과 서구의 체면이 형성된 배경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상적 배경이다. 중국은 농경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압하는(重农抑商) 전통이 몇천년간 이어졌다. 농민의 신분이 대부분 일평생 변하지 않는 자급자족(自给自足), 남경농직(男耕女织)의 농업사회이다. 경제생산단위가 가정이므로 사회적방면으로 가족 기준의 사회구조로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족(집단)간에는 등급과 질서로 사람들의 행동이 제한되었고 이것이 예(禮)이다. '공손'의 뿌리는 유가의 '예'의 전통에 있다. 이로서 "신분의 귀하고 비천함을 구분하고 가치가 귀하고 천한 것을 안다(别尊卑, 明贵贱)"이 생겨났다. 예는 주관적인 욕구와 객관적 현실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집단이 개인을 제약하고 개인의 자유가 도드라지지 말아야 한다. 개인은 완전히 가족 안에 파묻힌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와 '중용의 도'를 강조하고 겸손을 추구한다.(朱晓玲, 2009)

서구문화는 그리스문화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리스문화의 기반이 민주정신이다. 자본주의시대이래 인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화되었고,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가 핵심인 개인주의 가치관이 형성 되었다. 개인의 감정, 욕구, 목적과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시 되고 뚜렷해졌다. 서구사회는 예로부터 상업을 중시하였고 후에 공업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다. 서구문화는 서방의 자유평등 사상 전통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개인과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고 개인의 자신감과 실사구시적 태도를 추구한다.(朱晓玲, 2009; 谢士金, 李方晓, 2007)

新敎문화의 서양인은 중국어의 "사람노릇 한다(做人)"의 개념이 부재한데, 이는 서양문화에서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다(to be)로 이해하기 때문이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是"이다. 중국인에게 "是" 개념보다는 "한 사람노릇을 한다(做人)"의 개념이 더 크다. 사람노릇이란 개인이 자기에 대한 관점보다 사회관중이 자기를 보는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면은 중국인의 사람노릇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이선유, 2004)

둘째는 종교적 배경이다. 중국인들에게 예가 곧 종교에 버금가는 가치이고 세상의 질서이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갈등이 생기면 개인은 자신을 이익을 희생하여 집단의 이익을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가족의 체면에 영향을 끼칠 때 개인은 자신의 체면을 희생하여 가족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유교문화 영향으로 조상숭배, 효 문화 고착, 부모나 조상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은 용납안됨.

반면에 서양의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개인이 부담하는 종교적 의무는 가족의 요구를 훨씬 초과했다. 교회의 응집력은 가족의 응집력을 희생하여 생겨난 것이고, 교회의 응집력은 가족의 응집력을 훨씬

씬 초월한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고 귀천의 구분이 없다. 인간관계가 전반적으로 평등한 것을 나타낸다.(孙丽丽, 2007; 朱晓玲, 2009)

이렇듯 서양의 개인중심의 수평적 인간관계에서의 체면과 중국의 집단중심의 수직적 인간관계에서의 체면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3.2.2 체면 양상의 비교

처음으로 중국인의 성격의 특징의 하나로 미엔쯔를 기록한 사람은 미국 선교사 스미스이다. 1872년에 중국에 그는 22년동안 청말의 중국인을 묘사하고 개괄하여 *Chinese Characteristics*을 출간했다. 서양인의 눈에 보인 중국인의 체면이 중국인의 여러 소질을 여는 복합자물쇠라고 표현하였다. 중국인들은 드라마본능을 지니고 배우처럼 연기하는데, 체면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서술하였다.(이선유 2004) 중국인들은 자신은 극중에 두고 연극적 술어로 사고하곤 하는데 서양인은 이러한 방법이 군더더기라고 여긴다. 중국인에게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형식"이다.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체면이 서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거나 잊거나 연출을 중단한다면 체면을 잃게 된다. 서양인의 시각에서 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잠재된 능력이 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明恩溥, 2005)

미국인과 한국인의 체면을 비교한 강길호(2004)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이라는 자치적인 이미지(negative face)와 능력이 있다는 이미지(positive face)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체면이다. 또한 듣는 사람인 상대방의 체면보다 말하는 사람의 체면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또한 말하는 사람인 자아체면과 듣는 사람인 타자체면(혹은 상대방 체면)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분리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규칙을 잘 따른다는 규범적 이미지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뛰어나다는 과시적 이미지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체면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동양사회는 자아체면과 타자체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고, 화자와 청자의 체면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강길호, 2009) Oetzel, John, et al.(2001)은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네 가지 국가 문화 간의 체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체면을 자기체면, 타인체면 그리고 상호간 체면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주의 문화인 서양에서 독일인은 미국인에 비해 자기 체면과 상호간 체면을 더 많이 걱정하고 방어를 사용했다. 집단주의 문화의 동양에서 중국인은 일본인보다 더 많은 자기 체면을 걱정하고 제3자를 참여시켰다. J. Li, C. Su(2006)는 아시아인의 사치품에 대한 강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인의 체면과 미국인의 체면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중국과 미국의 체면을 집단체면-개인체면, 의무-자유의지, 타인체면 지향-자기체면 지향으로 대비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체면(face)과 위신(prestige)과 구분할 수 있음을 제기한다. 그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세가지 연구 가설을 증명하였다. 첫째,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 보다 집단의 영향을 더 받는다. 둘째,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보다 체면을 제품의 브랜드와 연관시킨다. 셋째, 중국의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 보다 선물이나 파티등을 위한 소비에 제품의 명성을 더 고려한다.

전통적으로 농업사회이고 친족, 씨족 중심의 집단생활을 하고 유교문화인 것은 서구문화와 대비되는 특징이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체면과도 구분되는 중국의 체면은 무엇일까? 주요한 요인은 지리문화적 특성이다. 중국은 국토 면적 960만 평방미터의 큰 대륙국가이다. 이는 걸치레를 중시하고 체면을 좋아하는 것 밀접한 관계가 있다. 리위예썬(李约瑟)는 일본의 경우를 중국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지리환경적 조건으로 일본은상대적으로 국토가 협소하고 원자재가 부족하므로 수입에 의존했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기업들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늘 절약에 신경쓰고 모든 재료를 꼼꼼히 신경쓰고 절대 낭비를 하지 않는다. 한국 역시 국토가 좁고 많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한다. 이러한 지리환경은 중국인으로 하여금 “큰” 것에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하였다. 많은 일에 “큰 것이 완전한 것” “천하제일”을 추구하게 하였다. “걸치레”가 큰 것을 따진다. 무

슨 일을 할 때 '걸치레'가 크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고 곧 체면이 없는 것이다.(孙丽丽, 2007)

이렇듯 서양의 공손연구를 기초로 중국어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비교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미지는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라운 & 레빈슨의 적극적 체면과 중국어 문화의 체면은 비슷하지만 소극적 체면은 중국어의 체면과 거의 비슷한 것이 없는데 서구문화는 소극적 체면의 보호에 치중한다. 이 점이 중국과 서구 체면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서구에서는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고 충분히 서로의 행동의 자유를 존중한다. 중국어의 체면은 존엄과 존중에 대한 요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로 하는 말(인사)이 영어권 문화에서는 오히려 소극적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듯 서구인들은 자신의 관점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싫어한다.(朱晓玲, 2009) 또한 중국인은 대부분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습관화 되어있다. 겸손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서구인들이 볼 때 오히려 체면에 대한 위협이다.(谢士金, 李方晓 2007) 서구에서는 직접 이름을 부른다. 중국문화에서는 예의원칙이 호칭에도 나타난다. 호칭도 공경의 의미가 나타나야 적극적 체면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혈연관계의 명사로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를 수 있다. 老李、小王 등의 호칭도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집단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6

서구의 체면은 개인이 타인과 교류할 때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는 것을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중국은 사회단위에서 각 개인으로 다시 향한다. 매 중국인은 모두 집단을 위해 체면을 다룰 의무가 있고 집단의 체면을 공유할 권리가 있지만 체면을 잃을 권리는 없다. 집단의 체면이 한 번 떨어지면 개인의 힘으로는 만회하기 어렵다. 잃는 것은 집단의 체면이다. 때문에 중국인에게 무거운 체면의 부담을 만들었다.(朱晓玲, 2009)

중국의 체면은 사회성, 관계성, 도덕성, 등급성 등 본연의 특징과 다른문화와 뚜렷하게 비교되는 걸치레의 강조, 집단중심주의 등의 특징까지 파악할 수 있다.

3.2.3 브라운 & 레빈슨 이론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

브라운 레빈슨의 체면론이든 중국인의 체면관이든 모두 어떻게 교류를 더욱 성공적으로 하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면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공적인 이미지라는 점에서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이지만 문화적 가치마다 추구하는 공적인 이미지의 유형이 각기 다르므로 또한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강길호, 2009)

공손이론으로 체면을 분석할 때 신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范洪涛, 刘铁凤 2019) 브라운 & 레빈슨과 리치의 일부 관점은 중국문화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소극적 체면 개념의 정의가 다르다.(贾静, 2013) 또한 브라운 레빈슨의 체면 개념이 강조하는 것이 개인 이미지(self-image)인데 반해 중국어 체면이 강조하는 공공 이미지(public-image)와 서로 대비된다.(Mao 1994)

중국어에 나타나는 체면은 개인은 되도록 겸손하고 긍정적인 평가는 가족 등 집단으로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화시에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해주는 것은 상대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긍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브라운 & 레빈슨의 체면위협행위에 따른 전략에서 적극적 공손이 소극적 공손보다 위협강도가 크다는 것은 서구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중국어에 적용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헤어질 때를 예를 들면, 손님이 갈때 중국인들의 인사법은 보통 "잘 가세요(走好)", "천천히 가세요(慢走) 등의 인사말을 한다. 이런 손님에 대한 주인의 관심의 인사를 서양문화에서 사용한다면 손님은 매우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Mind you steps", "Go slowly" 등은 듣는사람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게하는 화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에게 이런 말 자체가 예의의 말이다. 서양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을 타인에게 강요받는 것을 싫어한다.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에 집중하는 것이 소극적 체면 전략의 응용이다.(朱晓玲 2009)

4. 중국어의 체면위협이론 적용 타당성 고찰

본 연구는 중국어의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의 상대적 체면 위협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브라운 & 레빈슨 공손전략 선행연구의 예시에 근거하고 다양한 담화상황을 설정하여 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8문항으로 응답자는 각각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 중에서 체면에 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였다.

위챗(微信)의 응용프로그램(小程序)인 텡신설문(腾讯问卷)을 사용하여 성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총 69명이고 남성이 13명(18.8%)이고 여성이 56(81.2%)명이다. 연령대는 29세 이하 33명(47.8%), 30~49세 33명(47.8%) 그리고 50대 이상이 3명(4.3%)이다. 설문지 언어는 중국어이고, 설문지에는 명시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다.

4.1 설문결과 고찰

설문지의 각 문항의 내용과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당신과 동료는 오늘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료가 맡은 부분은 준비를 다 하였는데 당신은 준비를 다 못했다. 동료가 말하길:

명시적: 아직까지 준비를 다 못한 건 잘못이니 빨리해요. (충고)

a. 적극적: 我知道你最近负责的任务多很忙。如果你今天能加班，我会帮你。 요즘 맡은 일이 많아 바쁜 거 알아요. 오늘 야근할 수 있음 내가 도울게요. (상호 간 협력자 관계, 상호 보완적 제시) 33(47.8%)
b. 소극적: 材料还没准备好呢。我觉得我们今天把材料整理完毕。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내 생각에 우리는 오늘 자료정리를 완료해야 할 거 같아요.(명사화, 양상동사, 비인칭) 36(52.2%)

2. “이 일을 그에게 알리지 마세요”의 의미를 표현하려면 어떤 방식이 듣는 이의 체면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겠는가?

명시적: 이 일을 그에게 알리지 마세요. (금지)

a. 적극적: 我相信你不会把这件事告诉他。 이 일은 그에게 비밀에 부쳐야 해요.(낙관적 표현) 43(62.3%)
b. 소극적 공손: 这件事需要对他保密。 나는 당신이 이 일을 그에게 알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명사화) 26(37.7%)

3. 당신이 막 샘플디자인의 최종 버전을 사장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때 당신의 동료가 당신에게 말하길:

명시적: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건의)

a. 적극적: 我知道你不会失误，但你给经理看之前，会再次确认样品，对吧？ 당신이 실수 안 할 거라는 건 알지만, 사장에게 보여주기 전에 한 번 더 샘플을 확인할 거죠?(상호간 협력자관계, 동의 구하기) 27(39.1%)
b. 소극적: 样品最好再次确认，你给经理看之前，能再看看吗？ 샘플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죠, 사장에게 보여주기 전에 다시 볼 수 있겠어요? (명사화, 양상동사) 42(60.9%)

4. 당신의 동료가 얼마 전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는 당신이 돈을 갚을 것을 언급하려고 한다. 당신의 동료가 말하길:

명시적: 돈을 돌려줄 때가 되었네요.(환기)

- a. 적극적: 小李, 就是, 你说上次你借的那笔钱对你帮助很大, 我很高兴帮到你了啊. 如果你这个星期还我钱, 那我这边就没什么问题了.
**씨, 있잖아, 지난번 빌려 간 돈이 큰 도움이 됐나니 도움이 돼서 기뻐, 만약 이번 주에 갚음 내가 별문제 없겠어. (강화수식어 사용, 청자관심촉구, 상호보안적 제시) 28(40.6%)
- b. 소극적: 我怕催你 有点不好意思说 但是上次的那笔钱你能还我吗? 最好本周能还.
재촉하는 거 같아 말하기 좀 미안한데요, 지난번에 빌린 돈 갚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돌려줄 수 있음 쟈 좋겠네요.(주저어, 양상동사) 41(59.4%)

5. 당신이 동료에게 말했다:내일 보고하는 거 굉장히 긴장되네요. 동료가 말하길:

명시적: 보고하는 게 많이 긴장되는 것 같군요.(공감)

- a. 적극적: 你压力很大啊. 不过, 昨天组长开会, 你知道我听到什么吗? 他说你准备的很充分呢. 스트레스가 크군요, 그런데, 어제 팀장이 회의하는데 내가 몰 들었는지 알아요? 팀장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준비를 잘했다더군요. (반대 회피, 청자관심촉구) 30(43.5%)
- b. 소극적: 向上司的汇报还是有点棘手, 不好意思我没能帮上忙.
상사에게 보고하는 건 좀 까다롭죠, 내가 도움이 못 돼 미안해요. (명사화, 사과) 39(56.5%)

6. 당신이 동료에게 말했다:“제 신제품 기획안 좀 봐줄래요?” 동료가 말하길:

명시적: 기획안을 수정하는 게 좋겠네요.(제안)

- a. 적극적: 你的这计划方案很不错! 我知道你下了大功夫. 但是目前我们组除了女装以外, 还涉及到男装, 是吧?
기획안 훌륭하네요! 신경 많이 쓴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팀은 여성복 말고도 남성복도 연관됐죠, 그렇죠? (강화수식어, 상호간 협력자 관계, 동의구하기) 36(52.2%)
- b. 소극적: 麻烦你把方案的这部分调整一下. 我觉得稍微补充就好.
번거롭지만 기획안의 이 부분은 좀 조정해봐요. 조금만 보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관용적 공손 표지, 주저어, 완곡) 33(47.8%)

7. 당신의 동료가 지난주에 당신에게 어떤 문제를 물으며 당신이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다. 그가 오늘 말하길:

명시적: 지난주에 부탁한 거 답을 주세요. (요청)

- a. 적극적: 小伙伴, 我相信你没有忘记这个问题, 是吧?
친구, 난 당신이 이 문제를 잊지 않았다고 믿어, 그렇지? (동질 집단어, 낙관적 표현, 동의 구하기) 39(56.5%)
- b. 소극적: 这个问题稍微要紧, 不好意思, 你可以早点给我回复吗?
이 문제가 좀 급해요, 미안한데 일찍 답을 줄 수 있나요? (명사화, 주저어, 사과, 양상동사) 30(43.5%)

8. 부주의해서 메일을 잘못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전하길:

명시적: 사장님한테 가세요. (지시)

- a. 적극적: 老板要见你. 你为此事很惊慌了吧? 我知道你也不是故意的.
사장님이 보자고 하네요. 이 일로 많이 당황했지요? 당신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요. (동의 구하기, 상호간 협력적 관계) 54(78.3%)
- b. 소극적: 老板要见你. 这样的失误我也做过几次呢. 你还是跟老板冷静的谈才好.
사장님이 보자고 하네. 이런 실수는 나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도 사장님과 차분하게 얘기하면 괜찮을 거예요. (명사화, 비판적 태도, 양상동사) 15(21.7%)

체면위협행위⁷를 드러내는 경우는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실현 목표가 상이하거나 대화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이 상충할 경우 발생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내용적 범주와 형식적 범주로 구분하여

⁷ 상대를 비판하거나 거절, 비방과 같은 행위로 체면위협행위가 드러나게 된다.(김지연, 2019:39)

기능을 살피고, 담화상황에 따라 화행기능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손 전략의 양상은 그 담화에 드러나는 명시적 기제를 바탕으로 형식적 범주를 분류해볼 수 있다. 또한 화자에 도움 유무, 청자의 행동 요구 정도, 화자의 권리 여부, 화자 청자와의 관계, 행동 주체 요소에 따라 담화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강현화 2007, 김지연, 2010)

이에 본 설문의 문항은 충고, 금지, 건의, 환기, 공감, 제안, 요청, 지시의 8개 화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현화(2007)의 담화상황 중 강제성과 화자의 권리 여부를 본 설문 문항 맥락을 근거로 담화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담화상황과 화행 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의 위협 정도 조사 결과

공손	강(강제성) O, 화(화자의 권리) O				강X, 화O		강 X, 화 X	
	2 금지	6 제안	7 요청	8 지시	1 충고	4 환기	3 건의	5 공감
적극	43 (62.3%)	36 (52.2%)	39 (56.5%)	54 (78.3%)	33 (47.8%)	28 (40.6%)	27 (39.1%)	30 (43.5%)
소극	26 (37.7%)	33 (47.8%)	30 (43.5%)	15 (21.7%)	36 (52.2%)	41 (59.4%)	42 (60.9%)	39 (56.5%)

본 조사에서는 8문제 중 4문제는 소극적 공손전략의 체면위협정도가 더 높고, 4문제는 적극적 공손 전략의 체면위협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지의 금지, 요청, 지시, 제안은 강제성이 있고 화자의 권리가 있는 화행이고, 충고와 환기는 강제성은 없되 화자의 권리는 있는 화행이고, 건의와 공감은 강제성과 화자의 권리가 모두 없는 화행이다.

〈표 3〉 강제성, 화자의 권리와 체면위협정도의 관계

화행	강제성	화자 권리	체면위협정도
2 금지	O	O	적극<소극
7 요청	O	O	적극<소극
8 지시	O	O	적극<소극
6 제안	O	O	적극<소극
1 충고	X	O	적극<소극
4 환기	X	O	적극<소극
3 건의	X	X	적극<소극
5 공감	X	X	적극<소극

설문 조사 결과와 함께 보면, 강제성과 화자 권리가 모두 있는 화행은 적극적 공손 전략의 체면위협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라운 & 레빈슨의 체면위협 행위에 대한 전략에서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반면에 소극적 공손 전략의 체면위협정도가 더 크다고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충고화행과 환기화행은 강제성은 없고 화자의 권리는 있고, 건의화행과 공감화행은 강제성과 화자의 권리가 모두 없다. 따라서 강제성의 유무가 체면위협정도와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는 경우는 청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소극적 공손을, 강제성이 없는 경우는 청자를 칭찬하거나 호의적인 적극적 공손을 사용하는 것이 체면을 보호할 수 있다.

4.2 성별, 연령별 요인에 따른 설문결과 고찰

다음은 성별, 연령별에 따른 체면위협정도의 응답 결과를 담화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4.2.1 성별 공손전략의 체면위협정도 고찰

설문 조사 남성/여성의 결과를 담화상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성별 공손전략 비교

	강(강제성) O, 화(화자의 권리) O				강X, 화O		강 X, 화 X	
	2 금지	6 제안	7 요청	8 지시	1 충고	4 환기	3 건의	5 공감
남								
적극	7 (53.8%)	9 (69.2%)	7 (53.8%)	9 (69.2%)	5 (38.5%)	6 (46.2%)	4 (30.8%)	8 (61.5%)
소극	6 (46.2%)	4 (30.8%)	6 (46.2%)	4 (30.8%)	8 (61.5%)	7 (53.8%)	9 (69.2%)	5 (38.5%)
여								
적극	36 (64.3%)	27 (48.2%)	32 (57.1%)	45 (80.4%)	28 (50%)	22 (39.3%)	23 (41.1%)	22 (39.3%)
소극	20 (35.7%)	29 (51.8%)	24 (42.9%)	11 (19.6%)	28 (50%)	34 (60.7%)	33 (58.9%)	34 (60.7%)

위의 표에서 노란색 셀은 남성 또는 여성의 선택이 많은 전략이고 붉은색 숫자는 응답자 전체가 많이 선택한 전략이다.

강제성이 있는 화행에서 남성은 금지, 제안, 요청, 지시화행 모두 적극적 공손이 위협 정도가 더 크다고 나타났다. 여성은 금지, 요청, 지시화행의 위협 정도가 더 크고 제안화행은 소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더 크다. 강제성이 없는 화행 중에 남성은 공감화행을 제외하고 모두 소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더 크다고 나타났다. 여성은 충고화행은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환기, 건의, 공감화행은 소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더 크다고 나타났다.

성별 간 차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제안화행은 남성이 적극적 공손 전략, 여성은 소극적 공손전략이 각각 위협 정도가 더 크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제안화행은 유형 간 차이는 3.6%로 작다. 둘째, 충고화행은 남성이 소극적 공손 전략의 위협 정도가 더 크다고 나타났지만 여성은 두 유형의 위협 정도가 같았다. 셋째, 공감화행이 가장 대조적이다. 남성은 공감 상황에서 적극적 공손이 더 불편하고 여성은 소극적 공손이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요인에서 가장 대조적인 공감화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일 보고하는 거 굉장히 긴장되네요”에 대한 공감 반응 중에 남성은 61.5%(8명)가 “你压力很大啊, 不过, 昨天组长开会, 你知道我听到什么吗(반대 회피, 청자 관심촉구)? 他说你准备的很充分呢(긍정, 칭찬)” 표현이 체면에 더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반면에, 여성은 60.7%(34명)가 “向上司的汇报还是有点棘手(명사화), 不好意思我没能帮上忙(사과/유감 표현)” 표현이 체면에 더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남성은 공감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에 대해 공감받기보다는, 보고하는 일 자체가 객관적으로 까다롭다는 점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체면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은 공감과 관심을 받는 전략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제성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브라운 & 레빈슨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체면위협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4.2.2 연령별 공손전략의 체면위협정도 고찰

설문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29세 이하, 30~49세, 50세 이상 응답자로 구분하여 담화상황에 따라 결과는 알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연령별 공손전략 비교

	강(강제성) O, 화(화자의 권리) O				강X, 화O		강 X, 화 X	
	2 금지	6 제안	7 요청	8 지시	1 충고	4 환기	3 건의	5 공감
~29세								
적극적	21 (63.6%)	19 (57.6%)	19 (57.6%)	25 (75.8%)	13 (39.4%)	15 (45.5%)	14 (42.4%)	15 (45.5%)
소극적	12 (36.4%)	14 (42.4%)	14 (42.4%)	8 (24.2%)	20 (60.6%)	18 (54.5%)	19 (57.6%)	18 (54.5%)
30~49								
적극적	21 (63.6%)	16 (48.5%)	18 (54.5%)	26 (78.8%)	19 (57.6%)	12 (36.4%)	12 (36.4%)	14 (42.4%)
소극적	12 (36.4%)	17 (51.5%)	15 (45.5%)	7 (21.2%)	14 (42.4%)	21 (63.6%)	21 (63.6%)	19 (57.6%)
50~								
적극적	1 (33.3%)	1 (33.3%)	2 (66.7%)	3 (100%)	1 (33.3%)	1 (33.3%)	1 (33.3%)	1 (33.3%)
소극적	2 (66.7%)	2 (66.7%)	1 (33.3%)	0	2 (66.7%)	2 (66.7%)	2 (66.7%)	2 (66.7%)

역시 노란색 칸은 연령별 응답자가 많이 선택한 전략이고, 빨간색 수치는 전체 응답자가 많이 선택한 전략이다.

강제성이 있는 화행은, 29세 이하 응답자 모두 적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49세 응답자도 제안화행을 제외하고 적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응답자는 요청, 금지화행은 적극적 공손이, 금지와 제안은 소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가장 확연한 차이는, 강제성이 있는 화행(금지, 제안, 요청, 지시)에서 적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와 소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의 비율이 29세 이하 4:0, 30~49세 3:1, 50세 이상 2:2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극적 공손의 위협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9세 이하의 젊은 층은 문화 교류에 경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타문화를 수용하고 전통사상의 영향은 그만큼 적게 받는 점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선택의 여지를 주거나 강요하지 않는 전략이 체면보호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화행은 대체로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30~49세 응답자만이 충고화행을 적극적 공손으로 응답하다. 다른 화행과 다른 연령의 강제성 없는 화행 모두 소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강제성이 없는 담화상황에서는 연령에 차이 없이 적극적 공손이 예의 원칙에 더 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30~49세의 응답자의 결과가 브라운 & 레빈슨의 체면위협정도와 가장 가깝고, 50세 이상이 가장 거리가 멀다. 그러나 50세 이상 참여자가 3명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강제성의 유무와 응답자의 변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강제성 유무와 성별, 연령별 체면위협정도의 관계

전체 응답자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49세	50세 이상
강제성 有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강제성 無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 < 소극

적극적 공손을 많이 선택한 대상은 성별 요인에서 남성이고, 연령요인에서는 29세 이하의 응답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변인과 상관없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체면위협이론을 중국어에 적용하기 위한 제안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의 비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두 전략의 중국어 적용문제를 살펴보았다.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브라운 & 레빈슨의 W_x (체면위협정도)를 높이므로 FTAs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을 긍정하고 칭찬하는 전략적 공손 전략을 사용하면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전략보다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W_x 가 크게 나왔음에도 FTAs를 사용한다면 소극적 공손을 사용하는 것이 체면위협정도를 낮출 수 있다.

반면에, 강제성이 없는 경우 W_x (체면위협정도)가 낮아지므로 FTAs를 하게 된다. 브라운 & 레빈슨 이론대로라면 적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가 더 크겠지만, 조사 결과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 소극적 공손 전략의 위협 정도가 더 높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결과는 브라운 & 레빈슨의 이론과 불일치하다.

FTAs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에 FTAs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브라운 & 레빈슨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FTAs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브라운 & 레빈슨의 이론에서 체면위협이 클수록 FT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체면위협정도의 크고 작음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체면위협이 높을지라도(금지, 명령 등) 담화상황에 맞게 위협 정도를 조정하여 FTA를 하는 것이 현실의 언어생활이다. 따라서 “FTA 사용 안 함”을 하나의 “전략”보다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체면 개념과 속성, 그리고 중국인들의 체면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보면 강제성이 있는 경우 집단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체면을 희생하여 소극적 공손을 선호하고,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 체면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 공손을 선호한다. 따라서 중국어에 브라운 & 레빈슨의 이론을 적용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

〈표 7〉 브라운 & 레빈슨과 설문 조사 결과의 체면위협정도 비교

	브라운 & 레빈슨		중국어 공손 전략 제안
체면위협정도 (강제성)작을수록	명시적/완화장치 있음	적극적 공손	소극적 공손
		소극적 공손	적극적 공손
체면위협정 (강제성)클수록	FTA 사용 안 함		적극적 공손
			소극적 공손

중국어의 체면위협에 대한 전략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브라운 & 레빈슨의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개념은 유지하고, 강제성이란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강제성이 있는 경우 소극적 공손의 체면위협정도를 적극적 공손보다 크게 설정하고,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적극적 공손의 체면위협정도를 소극적 공손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 언어생활에서 체면이 손상당하거나 체면을 보호하는 등의 문제를 연구할 때 기존

이론 적용의 타당성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체면의 문화 배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 체면을 다루는 연구는 서구의 이론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잠재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 중국어에 체면은 매우 핵심적이고 독특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이 기반인 브라운 & 레빈슨의 체면위협정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특히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간의 위협 정도 차이가 중국어 문화와 영어문화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우선 체면 이론을 정리하고 브라운 & 레빈슨의 체면에 대한 관점과 체면위협 정도에 따른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다른 문화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체면이 다른 문화 비교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영어권 서구 문화의 체면과 비교하고, 또한 같은 동양 내에서 존재하는 중국의 체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중국의 체면은 본질적으로 사회성, 관계성, 도덕성, 등급성 등 본연의 특징과 함께 상대적으로 걸치레의 강조, 집단중심주의의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중국인이 판단하는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의 위협 정도를 비교하였고,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하였다. 성별 공감화행에서의 차이가 확인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강제성이 있는 담화상황에서 적극적 공손을 위협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는 브라운 & 레빈슨의 이론과 같이 적극적 공손의 체면위협정도가 더 높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중국어의 공손과 관련하여 강제성을 기준으로 위협 정도를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손전략 중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단도직입적인 전략, 간접적인 전략 또는 FTA를 사용하지 않는 전략을 중국어에 적용문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오미영. 2007. "방승 언어의 불손 전략 : 공손 전략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소통학보* 7-, 109-150.
- 이선유. 2004. "미엔쯔(面子)가 중국대의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애. 2013. "체면이 영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언어연구* 28(4), 767-790.
- 조용길. 2007.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 모델의 한계와 그 극복 가능성." *獨語教育* 40, 115-135.
- 주민욱. 2015. "한중(韓中)간 체면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에 미치는 영향". *중국학* 53, 269-292.
- 홍진욱. 2000. "영어요청 화행의 공손성 책략에 관한 비교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 7(1), 293-330.
- Brown, P., Levinson, S. C.,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Vol.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o, L. R. 1994. Beyond politeness theory: 'Face' revisited and renewed. In He Zhaoxiong(ed.). *Selected Readings for Pragmatics*.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2003: 595-644
- Li, Julie Juan, Chenting Su. 2007. How face influences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9(2), 237-256.
- Oetzel, John, et al. 2001. Face and facework in conflict: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hina,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68(3), 235-258.
- 贾 静. 2013. "英汉礼貌现象对比研究". *陇东学院学* 24, 82-85.
- 鲁迅. 1994. "说"面子"". *社科信息文荟* (01), 33.
- 李雪梅. 2021. "论中西方"面子"文化". *今古文(02)*, 114-116.
- 李炜婷. 2010. "浅谈跨文化交际中的语用差异及对策". *新西部*(10), 172+171.
- 明恩溥 著, 秦悦 译. 2005. *中国人的素质*. 上海: 上海学林出版社
- 范洪涛, 刘铁凤, 刘茹菲. 2019. "'面子'理论跨文化研究述评". *吕梁教育学院学报* 36(04), 165-167.
- 谢土金, 李方晓. 2007. "礼貌中的中西方"面子文化"差异". *山东教育学院学报*(03), 56-58.
- 孙丽丽. 2007. "试论中国人面子观产生的历史渊源". *现代企业教育*(04), 180.

孙隆基, 박병석 역. 1997. *중국문화의 심층구조*. 서울:교문사
周建波, 解海兰. 2003. "风水、面子与市场营销 中国传统价值观对营销的影响". *证券日报*
朱晓玲. 2009. "论面子观的中西差异". *长春理工大学学报* 22(05), 776-777.

北京市新街口外大街19号

北京師範大學文學院

Phone: (86)010-58807785

Fax: (86)010-58805592

E-mail: jtchinese&@naver.com

3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교육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고영희(제주대학교) / 고용진(제주한라대)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교육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고영희 (제주대) · 고용진(제주한라대)

I. 서론

2010년 12월 제주어는 유네스코에 사라지는 언어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면서 제주지역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방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소멸언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제주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학교, 시민단체, 미디어, 행정기관에서는 제주어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제주어가 소멸언어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제주어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실생활에서 제주어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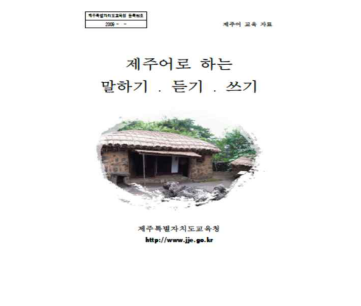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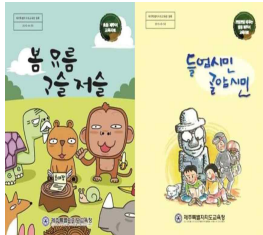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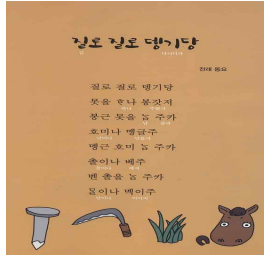
이에 2010년 12월에 제주어는 유네스코에 사라지는 언어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었다. 즉, 세계적인 ‘관리대상’의 언어로 지정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지역의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소멸언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제주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II. 제주어 보전 관리 현황

1.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 세화고등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제주어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1년 과정이어서 효과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형편이어서 지속할 수가 없어 아쉬움을 남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제주도민과의 제주어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에 의료과목에 지역어인 제주어 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2020년 8월 신제주 외국문화학습원에서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제주어교육 교원연수 운영하고 있다. (제주일보, 2020)

<표 1> 제주어 관련 교재

		
<p><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s 초등교재>Speaking,</p>	<p>1, 2학년 교과서에 실린 동요, 동시, 동화, 역할놀이 중 계절별</p>	<p>2016년부터는 동시와 동요, 동화, 역할놀이 등 주로 교과서에</p>

Listening and Writing in Jejeuo (2007)	로 묶어서 삽화를 넣은 생활속 제주어	나오는 내용을 변환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주어
		
<Textbooks for secondary schools 중등교재> Learning Jejeuo Through Verbs and Adjectives (2007)	Learning Jejeuo Through Proverbs (2007)	Learning Jejeuo Through Quizzes (2016)
		
Jeju People, Jeju Life 제주사난 제춧사름 (Oh et al. 2016)	A guide to Jeju spoken in the language of Jeju and English (Moon and Oh, 2012)	Understanding Jeju Speech 제춧말의 이해 (Ko et al., 2015)

2. 시민단체

제주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제주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 설립된 제주어보전회는 제주어 보전을 위한 순수 시민들의 모임으로 제주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2>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제주어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제주어보전회	제주어 기본 교육과정 (주 1회 3개월)	제주어 홍보·확산과 전승에 동참하는데 목적을 둔.
	제주어의 이해와 표현 (전문과정)	도내 초·중등학교 교사 및 제주어선생 육성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제주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꾀하고, 일선에서 제주어선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음.
	제주어선생 육성교육과정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하여 제주어에 대한 이해와 제주어 문화 확산하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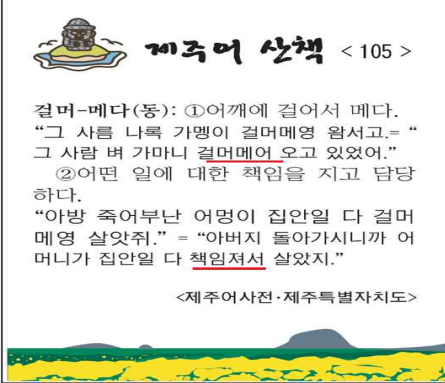
		데 있음.
제주어 연구소	이주민을 위한 ‘제주어학교-제주어 배우레 옹서’ (주 1회 3개월)	제주도민과 원활한 제주어 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도에 개설됨. 제주도민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함. 제주어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대화 내용으로 진행함.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학교 (주 1회 3개월)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 깃든 제주어를 통하여 잊혀가는 제주 문화와 제주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음. 농작물, 음식, 의생활, 해산물, 세시풍속, 굿, 제주민요, 문학 속의 제주어를 주제로 하여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다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강좌임.
	제주어 구술 강독회 (주 1회 3개월)	제주 사람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구술 자료를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제주의 언어,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임.

3. 미디어

미디어 매체의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일간지와 지방방송을 중심으로 신문 및 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라마 <어명의 바당>에서 제주어 사용을 통하여 감정표현, 몸짓은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제주어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언어에 대한 억양과 제주어 표현방식을 소리로 전달함으로 제주어 보급에 지방방송사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내 일간지에 제주어 코너를 마련하여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을 하나의 이야기와 콩트 형식으로 표현하여 언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표 3> 미디어에서 방영되는 제주어관련 프로그램

미디어 매체	프로그램명	내용
TV	<어명의 바당> : KBS, 2018년 5월9일부터 12주 동안 방영.	이 작품은 배우들의 대사가 모두 제주어인 ‘제주어 드라마’임. 대본 전체를 제주어 대사로 처리했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을 출연시켜 보다 완벽한 제주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함. 줄거리는 천년의 섬 비양도를 배경으로 할머니, 어머니, 주인공 손주까지 해녀 3대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임.
	<보물섬> : KBS, 2010년부터 - 현재까지 방영 중.	<보물섬>은 아름다운 제주 풍광과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담은 ‘고치글라(제주어로 ‘같이 가자’) 우리 마을’과 제주어 다큐드라마 ‘불휘지폰(뿌리깊은) 제주’, 그리고 제주 특산물을 재료로 한 특별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쉐프의 살레(제주어로 ‘찬장’)’ 등 3개의 코너로 구성됨.
	<KBS 제주어창작동요대회> : 2011년 ~ 2012년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존과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KBS 제주방송총국에서 기획되었던 동요제임. 저조한 보급률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쇠퇴로 인해, 2012년 제2회를 끝으로 폐지됨.
	KCTV 제주방송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제주어 뉴스를 방영하

	: 2019년 5월부터 방영 중	기 시작함.
신문	한라일보 제주어 코너 :고재만의 제주어기 림혼판 제주어 풀이 -2021년 6월25일자 <257>	 <p>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공작소 후원></p> <p>중대 고압저, "하르바님, 고사 남즈 아은 포따리서 무션 걸 출아신가양?" 하르바지 고맨, "오오, 그 포따리엔 예침 먹을 게 후출 아릿지." 오맹이 고맨, "메케라, 남즈 아은 어땡후엔 먹을 걸 고전가나신가양?"</p>
	한라일보 기획특집 :제주어 산책 -2012년 1월- 2013년 12월까지 게재함	 <p>걸머-메다(동): ①어깨에 걸어서 메다. "그 사람 나록 가맹이 걸머메영 완서고,=" "그 사람 버 가마니 걸머메어 오고 있었어." ②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아방 죽어부난 어멍이 집안일 다 걸머메영 살았쥬." =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집안일 다 책임져서 살았지."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p>

4.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는 제주어 보전을 위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제주어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 제주어 교육 관련 법령 개정하였다. 2007년 「제주어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탐라문화제 기간을 제주어 주간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탐라문화제 기간에는 제주방언 말하기 대회를 통해 제주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었고, 2018년 9월 제3차 제주어발전기본계획(2018-2022)가 수립되었다. 세 번째, 제주학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어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 현재는 제주학 연구센터를 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해 제주어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계층별 제주어 교육, 제주어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여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Ⅲ. 제주어 보전관리 방안

1. 제주 옥외광고 제주어 병행 표기

<표 4> 제주어 병행표기 옥외광고 표지판

<p>제주어 병행표기 입간판</p>	
<p>일반 간판</p>	

자료 : 제주도(2013)제주 옥외광고물 문화조성을 위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환경일보(2018), 제주시 신성로 제주어 문양 간판개선사업발주.

2. 버스정보체계 제주어 병행 표기

<표 5> 버스정보체계



제주버스 정보 앱		
--------------	--	--

자료 : 제주버스정보시스템, 제주의소리(2017)

<표 6> 지역버스정보체계

버스정류장 안내체계	노선안내
버스내부 홍보	버스내부 정류장 안내

자료 : 제주도 버스정보시스템

3. 제주관광체계 개선을 통한 제주어 보전

제주지역은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이 제주의 각 산업 1, 2차 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이다. 현재 제주관광 홍보는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 뷰로, 컨벤션 센터 등에서 제주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이트에서도 제주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제주어 노출빈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제주도는 제주학연구센터,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출빈도가 높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제주관광정보센터에서는 제주어 보전을 위한 노력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우선 제주도에서는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어 보전의 길은 노출빈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제주어 부분도 추가하여 제주어를 지키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7> 제주도 홈페이지



자료: 제주도 홈페이지

4. 결론

본 연구는 제주어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죽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어 보전을 위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어 보전방향, 제주어 관광자원화 방안, 제주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 활동 촉진 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어 보전은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사용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어 보전은 채록 혹은 정리, 학술분야, 교육분야로 나누어 보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앞으로의 제주어 보전은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사용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제주어를 사용하고 어린이들이 제주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어 보전에 대한 제도를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제주어보전회 www.jejeuo.com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www.jejeuo999.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보전 및 육성조례 www.jst.re.kr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제주일보,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제주일보,제주도교육청,제주어교육) 교원 연수 실시, 2020.08.23.

<https://www.jeu.go.kr/traffic/bus2/issue.htm>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정보체계

4

A Study on a Pedagogical Linguistic Landscape:
From a Preliminary perspective

양창용(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A Study on Pedagogical Linguistic Landscape: From a Preliminary Perspective

Changyong Yang
(Jeju National University)

Today,

- There are two things mainly talked about
 - Starting with 'what is linguistic landscape(LL)?', the focus goes on 'characteristics of LL with relation to language use.'
 - The main talks will be around 'reasons for language learning through LL.' Even brief, how to deal with LL in learning and teaching.

What is LL? (Historically)

- the word "landscape" originated in late 16th century, from the Middle Dutch word "lantschap," "denoting a picture of natural scenery." (Lou 2009)

Thus,

- It refers to "a picture representing an area of countryside," "the genre of landscape painting,
- It is a representation of the physical space that it is inscribed upon.

What is LL? (Historically)

- According to Landry and Bourhis (1997: 24), issues related to the notion of linguistic landscape first emerged in the language planning field. Language planners in Belgium (Verdoot, 1979) and in Quebec (Corbeil, 1980) were among the firs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rking the boundaries of linguistic territories through the regulation of language use on public signs including billboards, street signs, and commercial signs (Leclerc, 1989), and in place names.

What is LL?

- "The language of public road signs, advertising billboards, street names, place names, commercial shop signs, and public signs on government buildings combines to form the LL of a given territory, region, or urban agglomeration" (Landry and Bourhis 1997: 25).

LL: its types

- Ben-Rafael et al (2006) distinguished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signs. The former category (top-down) refers to publicly institutional signs displayed by governmental, cultural and educational, religious, municipal, or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latter category (bottom-up) refers to private/ individual signs such as commercial and business signs and private announcements.

LL: its type

- Backhaus (2006) distinguishes between "official" and "non-official" multilingual signs. For him, Official signs are those "public" signs which are related to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ublic transport facilities. All other types of signs are classified as non-official signs.

Therefore, LL is,

- The language of public road signs, advertising billboards, street names, place names, commercial shop signs, and public signs on government buildings combines to form the linguistic landscape of a given territory, region, or urban agglomeration
- It refers to the visibility and salience of languages on public and commercial signs in a given territory or region.
- The linguistic landscape of a territory can serve important informational and symbolic functions as a marker of the relative power and status of the linguistic communities inhabiting the territory (Landry and Bourhis, 1997: 23-25).

Focusing on language code of LL

- Phonological elaboration
- Morphological elaboration
- Syntactic elaboration
- Discourse elaboration

Phonological Elaboration

- Alphabetism
- Romanization
- Parallel slogan

Morphological Elaboration

- Word formations:
- Types of morpheme
-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languages

Syntactic Elaboration

- Word order
- Part-of-speech

Discourse Elaboration

- Context-based meaning
- Bilingual interactions
- Linguistic triggers / hedges

Cultural Elaboration

- Conventionalism
- Context-information

LL from language code

(Linguistic aspects)

- poetic code: repetition, substitution, word play, etc.
(repetition: alliteration, assonance, rhyme)
(substitution: metaphor, simile)
(word play: meaning, sound, spelling)

LL from a pseudo-linguistic point

(Pseudo-linguistic aspects)

- Paralanguage: shape, typeface, layout of letter, words, etc.
- Limited space, therefore short(but appropriate for the relatively short time-span.

LL from a non-linguistic point

(Non-linguistic aspect)

- Motivational qualities
- Visual contexts
- Cultural information

Why LL for education?

- Texts found in cities have various meanings and overlapping functions (Lucci et al. 1998).
- Construction-representations of LL involves a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discursive negotiation.

- LL has 2 functions: informative and symbolic; informative function indicates the borders of the territory of linguistic group.
- It shows that a specific language or languages for communication or to sell products.
- The symbolic function refers to the value and status of the languages as perceived by the members of a language group in comparison to other languages (Landry & Bourhis, 1997, Cenoz & Gorter, 2009, p.56).

Spoken language teaching

- Genuine and authenticity
- Contextualization
- Discourse functions
- Inductive methods (McCarthy 1998: 47)

Then, LL from a pedagogical point

- As mentioned above, the basic nature of LL is related to
 - The language of LL is authentic and up-to-date.
 - With the consideration of context, learners can better understand language code of LL
 - Depending on the contextual situations, LL have various discourse functions.
 - LL is good for Inductive teaching

-- Thanks --

5

자기평가에 대한 통역학습자의 인식과 학습적용

허은진(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Self-assessment: Student Interpreters' Perceptions and Implementation

제주대학교
허은진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Research questions
3. Literature review
4. Methods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sion

Introduction

- In the education field, self-assessmen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learning activity in the context of self-directed learning.

“Self-assessment is a process of formative assessment during which students reflect on the quality of their work, judge the degree to which it reflects explicitly stated goals or criteria, and revise accordingly.” (Andrade & Valtcheva, 2009)

-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are necessary for student interpreters and professional interpreters.
- Interpreter researchers/teachers have suggested to implement self-assessment in the interpreting education.

Research Questions

- 1) What methods do student interpreters know that they can use for self-assessments in the interpreting education context?
- 2) What methods do student interpreters use for self-assessments?
- 3) What difficulties do they experience when performing self-assessments?
- 4) To what degree do student interpreters perceive the import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self-assessments in enhancing their interpreting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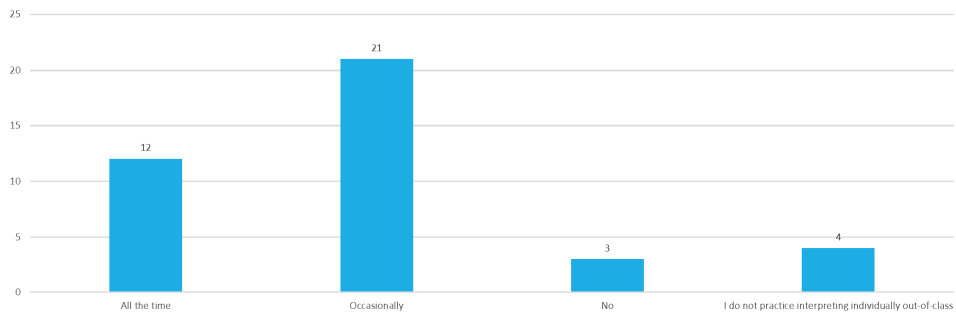
Literature review

- In the interpreting field, self-assessment normally refers to listening critically to a recording of one's own interpreting performance identifying weaknesses and strengths (Gillies, 2013).
- Researchers and teachers have advocated the usefulness of self-assessment in interpreter education (Bartłomiejczyk, 2007; Pinazo, 2008; Riccardi, 2002).
- While student interpreters seem to agree on the usefulness of self-assessment, they have expressed negative aspects of it and showed to focus heavily on their weaknesses and errors in their performances (Bartłomiejczyk, 2007; Ibrahim-Gonzalez and Noordi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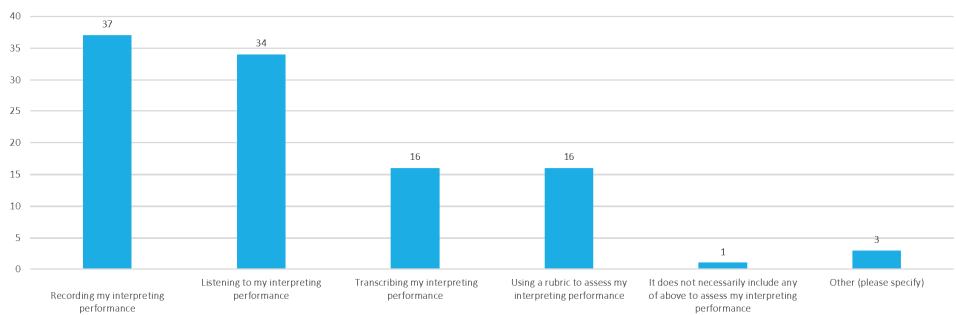
Methods

- Methods: Mixed methods (Quan + Qual)
 - Survey (N=40)
 - Focus group interview (N=8)
- Participants: Student interpreters who were enrolled in the Master's programmes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at Macquarie University in Sydney, Australia.

Students' voluntary engagement in self-assessment



Methods that student interpreters perceive as self-assessment



Methods used by student interpreters for self-assessment

Methods	Frequency N (%)			Total number of responses
	All the time	Occasionally	Never	
Recording	7 (19.4%)	28 (77.8%)	1 (2.8%)	36
Listening to a recording	8 (24.2%)	24 (72.73%)	1 (3.0%)	33
Transcribing	0 (0 %)	12 (40.0 %)	18 (60.0%)	30
Using a rubric	4 (13.3%)	9 (30.0%)	17 (56.7%)	30

Reasons for not recording performances

- Recording my performance every time is not necessary.
- I forget to record my performance.
- I record my performance every five or six performances to see my progress.
- I do not think recording and listening to my performance is helpful when my issues are related to my linguistic incompetence.

Reasons for not listening to my recordings

- I forget to listen to my recordings.
- I do not want to listen to my recordings.
-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 It is time consuming.
- I am too busy with practicing interpreting and doing assig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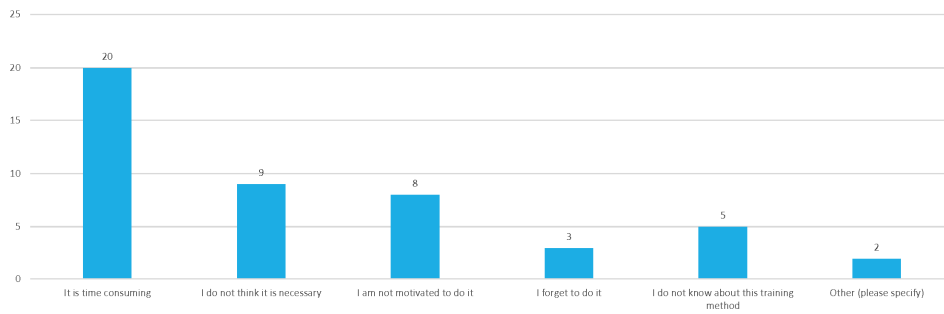
More reasons...

"[...] it is stressful to listen to yourself. And if you really want to correct your mistakes, you have to listen to it over and over again, and you definitely don't want to do that. After listening once, you are like 'Oh my god, I am gonna kill myself [...]' (A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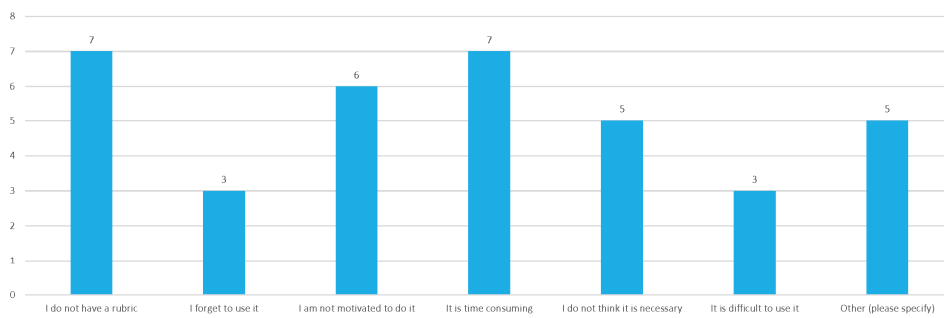
"It is quite stressful to listen to myself, because you know...you don't know what your voice actually sounds like." (Emma)

"[...] it doesn't damage me any more I know it is so poor and I don't need to embarrass the person who hear that because it is just my self-practice." (Chole)

Reasons for not transcribing



Reasons for not using a rubric



More reasons...

I do not know about the idea of using a rubric for self-assessment. (Survey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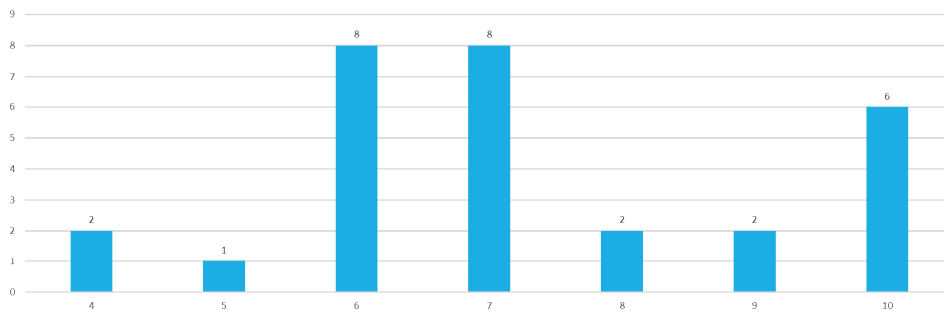
"I didn't really find how much they are useful in my practice. It must be useful. It must be. But not to me. At the stage my stage is it should be very low. I mean too low to use the rubric. Are they really useful?" (Sarah)

"I don't use them because I don't believe they are useful that much. Because I get easily biased, sometimes I overestimate myself and sometimes underestimate myself. I don't think the rubrics can reflect that effectively. I just can't be bothered to use them, honestly." (Jessica)

Student interpret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self-assessment

- The students were unsure of whether their self-assessment was accurate.
 - subjectivity and linguistic incompetence
- The students felt that self-assessment is emotionally draining.
 - "feel ashamed", "self-esteem gets damaged", etc.
- The students were unsure of the usefulness of self-assessment in improving interpreting skills.
 - Not knowing how to apply self-assessment results for improvement and repeatedly making same types of mistakes.

Student interpreters' perceived usefulness of self-assessment



Students' comments

"The reason why I believe it is useful was the first time I actually had to listen to myself the moment I realised that I have so many more problems, so much more problems, [...]. So that was really, I don't know, like a sort of a wake-up call to sort of motivate myself to study even harder. [...] I believe that self-analysis or self-assessment is pretty important, but, I know it is very useful, I know it is very good [...]" (Emma)

"I think it is essential to...even if it is time consuming, we all know that master degree is a lot but, yes, so just when you start interpret, I think it is important to do all of it." (Emily)

Discussion

- The level of knowledge in self-assessment seem to vary among the student interpreters.
 - Teachers tend to assume that students know how to self-assess without explicit guidance. (Heo, 2018)

- The common scope of self-assessment among students appears to stretch as far as listening to their recordings. However, they often forget to record and/or listen to their recordings.
 - The students regard practicing and assessing interpreting performance as two separate activities.
 - They may not be able to analyse their performance quality in-depth, and they are not aware of it.

Discussion (continued)

- The students' concerns about inaccurate self-assessment may be legitimate as they have limited domain knowledge (Alqassab, Strijbos, J.-W., & Ufer, 2018).

- Their limited domain knowledge seems to be associated with their avoidance of using rubrics.

- Without referring to rubrics, students tend to heavily focus on negative aspects of their performances (Bartłomiejczyk, 2007), which would lead to low self-esteem and demotivation (Wu, 2016).

Conclusion

- Although the students consider self-assessment a useful method for their learning, their perceptions and practice of self-assessment suggest that they may not fully benefit from it, which further discourages them from reviewing their performance.
- More explicit and careful guidance to student interpreters is necessary to encourage students to engage with the learning activity voluntarily.
- Further research with a larger population of student interpreters w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students' implementation of self-assessment in the interpreter education context.

References

- Alqassab, M., Stribos, J.-W., & Ufer, S. (2018). Training peer-feedback skills on geometric construction tasks: Role of domain knowledge and peer-feedback level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33*(1), 11-30. doi:10.1007/s10212-017-0342-0
- Andrade, H., & Valcheva, A. (2009). Promoting learning and achievement through self-assessment. *Theory Into Practice, 48*(1), 12-19. doi:10.1080/00405840802577544
- Bartłomiejczyk, M. (2007). Interpreting quality as perceived by trainee interprete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 247-267.
- Gillies, A. (2013). *Conference interpreting : a student's practice book*. Milton Park, Abingdon, Oxon : Routledge.
- Heo, E. (2018). *Interpreting students' ability in self-assess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Macquarie University, Sydney.
- Ibrahim-Gonzalez, N., & Noordin, N. (2012). Learner Autonomy via Self-Assessment in Consecutive Interpreting for Novice Learners in a Non-Interpreting Environment. *Sino-US English Teaching, 9*(4), 1065-1073.
- Pinazo, E. P. (2008). Self-assessment in teaching interpreting.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Etudes sur le Texte et Ses Transformations, 21*(1), 173-209. doi:10.7202/029690ar
- Riccardi, A. (2002). Evaluation in interpretation: macrocriteria and microcriteria. In E. Hung (Ed.),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4: Building Bridges* (pp. 115-126). Amsterdam: John Benjamins.
- Wu, Z. (2016). Towards understanding interpreter trainees' (de)motivation: An exploratory study. *Translation & Interpreting, 8*(2), 13-25. doi:10.12807/ti.108202.2016.a02

Thank you.

